국내경기 하강세 진입 "뚜렷"

통계청, 산업생산증가율 3개월째 둔화 … 선행지수 143.0

최근 경기가 하강세에 본격 진입했다는 사실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.

통계청이 발표한 「95년12월 및 연간산업활동동향」에 따르면, 95년 12월중 산업생산은 경공업부문이 부진한데다 중화학공업부문도 전기기계 · 비금속광물 · 석유정제업종 등에서 내수부진, 기계장비업종에서의 수출감소 등이 겹쳐 전년동월에 비해 6.9%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증가율은 94년2월 1.8%를 기록한 이후 2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95년10월 9.7%를 기록한 이후 3개월째 계속해서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.

생산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0.7%로 전월에 비해 1.1%포인트 떨어졌다. 국내기계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무려 11.4% 감소했으며 이같이 감소세를 보이기는 95년7월 마이너스 16.3%를 기록한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.

국내건설 수주는 자동차 · 전자 · 정유업 등 민간제조업부문의 공장 · 창고 등과 공공부문의 도로 · 교량 등의 발주호조로 전년동월에 비해 12.5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도소매 판매는 소매부문의 승용차 · 가정용기기 등의 판매호조와 백화점의 바겐세일에 의한 판매증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8.8%의 증가율을 기록, 전월의 증가율 6.7%보다 2.1%포인트 높아졌다.

95년 12월중 생산이 둔화되고 투자가 부진한데 영향을 받아 경기선행종합지수는 143.0으로 전월에 비해 0.2% 감소했고 현재의 경기가 상승 또는 하강상태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.4로 0.5%포인트 낮아졌다.

산업활동동향

구분		1995 11	1995 12	1994 12
생산	생산	7.9	6.9	12.1
	중화학	10.2	10.1	15.0
	경공업	▽0.8	▽3.9	4.6
	출하	8.3	7.2	12.7
	내수	4.7	5.1	11.1
	수출	18.8	13.2	17.8
	재고	13.1	15.4	6.7
	평균가동률	81.8	80.7	85.3
	생산능력	8.8	8.2	6.5
소비	도·소매물가	6.7	8.8	6.6
	내수용소비재 출하	6.6	8.5	4.6
투자	국내기계수주	2.2	▽11.4	21.6
	기계류수입액	17.5	3.2	40.6
	국내건설수주	23.0	12.5	27.2
	건축허가면적	▽25.8	▽10.4	28.0
고용	경제활동참가율	62.4	60.8	60.5
	취업자증가율	3.0	2.8	2.3
	실업률	1.8	1.8	2.1

<화학저널 1996/2/26>